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2권 소수민족문자판 출판좌담회 북경서

일정 민족출판사가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2권을 몽골족, 장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조선족 5개 소수민족 문자판 출판하였다. 중앙선전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22일 북경에서 제2권 소수민족문자판 출판좌담회를 가지고 번역출판 경험을 총화, 교류하였으며 학습산전 사업을 연구, 포지셔닝하고 습근평 세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민족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진일보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2권 소수민족문자판의 출판, 발행은 민족지역의 광범한 간부군중들이 더욱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같이 있

게 습근평 세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당중앙의 최신 정신을 소수민족 군중들에게 적시적으로 전달하는 데 유리하며 여러 민족 간부군중들이 당중앙의 국정운영 리념과 집권 방침책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부단히 증강할 수 있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심재와 연계시켜 이 중요한 저자를 참답게 학습하고 '중화민족은 단결단이고 중국공화국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다'는 목표를 둘러싸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라는 세시대 민족사업의 선명한 주선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여 여러 민족 군중들을 인도하여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네가지 자

신감'을 전정히 하여 '두가지 수호'를 달성하여 세시대 민족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회의에 참가한 동지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2권 소수민족문자판의 출판, 발행은 사상문화 선전사업의 한 개 큰 회사로서 소수민족언어 번역출판의 새로운 비전을 확립하고 새중국 창건 70주에 출판물들을 바친 것으로 의미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기' 주제고인 전개에 중요한 교재를 제공한 것으로 된다. 당의 혁신리념으로 사상을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과 더욱 단결하여 '다섯가지

“향향특별행정구정부는 법에 따라 엄숙히 추궁할 것”

림정철이 폭력사건 질책



22일 오후, 향향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림정철은 관공

기여 함향 전체가 본래하고 있다. 이의 함향에서는 원망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특별행정구정부는 미안 가지로 전력을 다해 조사할 것이고 법에 따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림정철은 함향은 법치사회이며 어떠한 폭력행위든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림정철은 폭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더욱 많은 폭력을 조장할 뿐이며 궁극적으로 함향사회와 경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후 사회 각계와 모든 시민들에게 함께 법치를 수호하고 폭력을 향해 'No'라고 확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갈등을 해결

중양단위 출장인원 식비 자체로 해결

8월 1일부터 시행

재정부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중공중앙 직속기관사무관리국은 일전 <출장 식비와 시내 교통비 결제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중양단위 출장인원은 출장기간에 규정에 따라 식비보조금을 수령한다. 확실한 사업의 수요에 의해 집대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배치하는 한번의 근무사수를 제외하고 식사비용은 자체로 해결한다.

출장인원이 집대단위에서 식사준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용당 사전에 식사 표준을 일러줄과 아울러 식사

제공측에 식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장인원은 출장기간에 규정에 따라 시내교통비를 수령한다. 집대단위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했을 경우 수급표준이 있으면 출장인원은 표준에 따라 교통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최고로 하루 시내교통비용 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급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일일당 반년에 따라 하루 시내교통비 표준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집대단위는 용당 규정에 따라 출장인원의 관련 비용을 받고 재계에 행정사단단위 자금원래 결산 명수증 또는 세부계산서를 발행하여 하여 확실한 상기의 증빙을 발행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명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일전 질강성 추주 (湖州)시 오흥(吳興)구 동림 (东林)진 위생원의 의료진과 동림진 총공회와 자원봉사자들은 거리로 나와 환경 미화원과 인부들에게 시원한 차와 수박을 대접하며 그들의 로고에 감사를 표했다.

교육부: 올해 3,000개 축구특색유치원 선별건설 계획

교육부는 일전 소식발표회를 열고 <전국 청소년교정축구사업보고 (2015-2019)>를 발표했다.

보고는 축구특색유치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2019년에 3,000개의 축구특색유치원을 선별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유치원축구교한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7월 전국 교정축구단공상은 전국 제1회 유치원축구교한자격 국가급 전문화 복지사업육성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각

각 원장과 교원 200명을 양성하고 아울러 시범육성을 마친 후 전국적인 육성을 가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8만 개 중소학교 가운데서 교정축구구특색학교로 선별인정된 학교는 2만 4,126개이며 교정축구개혁시험구 38개를 설립하고 교정축구시험현 135개를 선정했으며 전국적으로 '민간선' 훈련캠프 47개를 배치, 건설했고 고수준의 축구팀 181개를

모집했다.

보고서는 또 전국 교정축구구특색학교 기본표준을 제정하고 2,000만명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시간의 축구과목을 개설하고 과외훈련과 교내리그전을 조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체육위생에술사 사장 왕등봉은 "이는 2만 4,126개 교정축구구특색학교의 대 한명 학생이 모두 축구를 배우고 또 경성적으로 축구

훈련을 하며 학교 내부의 교정축구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전국 각급 각 유형 학교에는 교정축구장이 12만 960만개 있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교육계몽은 교정축구장을 3만 2,432개를 확전, 신규건설했으며 2020년에 이르러서는 또 새로 2만 8,545개를 신규건설하고 재전, 확전하게 된다. 인민넷

상반기 음주운전 취중운전 90만건 처리

일전,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201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총 90만 1,000건의 음주운전, 취중운전을 조사처리했는데 음주운전, 취중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고 공개했다.

소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취중운전 사망교통사고가 1,525건 발생하고 1,674명이 사망했는데 동기 대비

각각 20.7%와 20.4% 감소되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취중운전으로 빚어진 비사망교통사고는 7,512건으로 동기 대비 28.2% 증가해 형세는 여전히 엄중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이 시기는 여름방학, 휴수기, 휴가철이 함께 맞선다며 날씨가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 군중들의 피서, 놀이, 오락활동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취중운전

위험이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최근 3년 3.4분기 음주, 취중 운전 사고 상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취중운전 사고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주말, 야간, 농촌도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소형버스, 모터차를 사고의 함도 높았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광범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취중운전은 엄중한 교통위법 범죄행위로서 사

회피태성이 아주 크기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자각적으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안전하고 문명한 의식을 하며 음주운전 자각적으로 운전하지 말고 운전자 음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시종 엄격한 관리의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음주운전, 취중운전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할 것을 각 해당 부문에 요구했다.

제목뉴스

성위 주체교육령도소 사업추진회의 소집

진구발 사회 및 연설, 당일근 출석

올 상반기 료녕 GDP 동기 대비 5.8% 증가

지난해 이어 '안정 속에서 발전' 태세 유지

성인대상무위원회 조사연구성과교류회 소집

새 정부구입(采购)문건교보 발포

관련 보증금 재납부할 필요 없어

올해 료녕성 '백천만 인재공정' 인재 1,000명 선발

료녕성자연자원청 부동산등기청 작품문제 정돈



扫描全能王 创建